

2022/06/01

20171693 조병화

보조 교재 6.5절을 읽고 다음의 OpenGL의 기본 조명 공식에 대하여 자신이 이해한 바를 A4 용지 두 장에 요약하여 제출하라. (제출 내용 중에는 이 공식의 각 변수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기술되어야 함)

$$\mathbf{c} = \mathbf{e}_{cm} + \mathbf{a}_{cm} * \mathbf{a}_{cs} + \sum_{i=0}^{n-1} (att_i)(spot_i) [\mathbf{a}_{cm} * \mathbf{a}_{cli} + (\mathbf{n} \odot \overrightarrow{\mathbf{VP}}_{pli}) \mathbf{d}_{cm} * \mathbf{d}_{cli} + (f_i)(\mathbf{n} \odot \hat{\mathbf{h}}_i)^{s_{rm}} \mathbf{s}_{cm} * \mathbf{s}_{cli}]$$

OpenGL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조명 공식은, 기본적으로 퐁의 조명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구상되었다. 퐁의 조명 모델에서 빛의 반사는 3가지의 반사 형태(ambient reflection, diffuse reflection, specular reflection) 으로 나누어지는데, 위 공식을 이 3가지의 반사 형태로 분류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.

e<sub>cm</sub>: 물질의 방사 색

atti: i번째 광원과 물체 간 거리에 따른 빛의 밝기 조절, 감쇠 효과.(attenuation effect)

spot; : I 번째 광원이 spot 광원일 경우를 처리해 준다.

$$spot_{i} = \begin{cases} (\overrightarrow{\mathbf{P}_{pli}} \overrightarrow{\mathbf{V}} \odot \hat{\mathbf{s}}_{dli})^{s_{rli}}, & c_{rli} \neq 180.0 \& \overrightarrow{\mathbf{P}_{pli}} \overrightarrow{\mathbf{V}} \odot \hat{\mathbf{s}}_{dli} \geq \cos c_{rli}, \\ \\ 0.0, & c_{rli} \neq 180.0 \& \overrightarrow{\mathbf{P}_{pli}} \overrightarrow{\mathbf{V}} \odot \hat{\mathbf{s}}_{dli} < \cos c_{rli}, \\ \\ 1.0, & c_{rli} = 180.0 \end{cases}$$

Spot 광원 절단 각도가 180도와 180도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. 180도인 경우 점 광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, 180도가 아닐 경우에는 spot 광원을 사용한다. 이 때 바라보는 눈의 각도가 절단 각도 범위 내 일 때 주변으로 갈수록 어두운 효과를 내기 위해 spot 광원지수를 이용해 spot 조명 효과를 나타낸다.

## 1. Ambient Reflection

우선 ambient 빛이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사방에 고르게 퍼져 있다고 가정하는 빛을 의미한다. Ambient reflection 은 이러한 빛이 물체에 도달하였을 때 물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반사를 다룬다.

이러한 ambient reflection은 광원들이 물체에 끼치는 종합적인 전역 ambient reflection, , 각 광원이 물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역 ambient reflection 두 가지로 분류된다.

$$\mathbf{c} = \mathbf{e}_{cm} + \mathbf{a}_{cm} * \mathbf{a}_{cs} + \sum_{i=0}^{n-1} (att_i)(spot_i) [\mathbf{a}_{cm} * \mathbf{a}_{cli} + (\mathbf{n} \odot \overrightarrow{\mathbf{VP}}_{pli}) \mathbf{d}_{cm} * \mathbf{d}_{cli} + (f_i)(\mathbf{n} \odot \hat{\mathbf{h}}_i)^{s_{rm}} \mathbf{s}_{cm} * \mathbf{s}_{cli}]$$

전역 ambient reflection은 위의 공식에서  $a_{cm}*a_{cs}$  로 나타내어 진다. 이 때  $a_{cs}$  전역 ambient reflection 색을 나타내고,  $a_{cm}$ 은 물질의 기본 성질로, ambient 색깔을 의미한다.

지역 ambient reflection 은 공식에서  $a_{cm} * a_{cli}$ 로 나타난다.  $a_{cm}$ 은 아까와 같이 물질의 기본 성질 ambient 색이고, 이것에  $a_{cli}$ , I 번 광원의 ambient 색깔이 곱해서 합(sigma)쳐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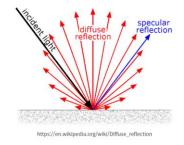
## 2. Diffuse Reflection

Ambient 반사와 달리 어느 광원을 통해 물체로 직접 들어오는 빛은 난반사와 정반사의 두 종류의 반사를한다. 이 중 난반사(diffuse reflection)은 입사 광선을 사방으로 고르게 동일한 밝기로 반사하는 형태의 반사이다. 아래 그림에서 빨간 선으로 표현된 반사가 난반사이다. 표면이 반짝이지 않는 물체를 렌더링할 때 주로 사용되며, 어느 시점에서 보아도 비교적 보이는 색이 변하지 않는다. 순수히 난반사만 하는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는 램버트의 코사인 법칙을 따른다. 이 공식은 물체에 입사하는 광원 L과 그 광원이 반사되는 법선벡터 N 사이의 각 θ 라고 할 때 반사되는 빛의 양이 cosθ에 비례한다는 것이다. 이 정보를 통해 공식을보면,

$$\mathbf{c} = \mathbf{e}_{cm} + \mathbf{a}_{cm} * \mathbf{a}_{cs} + \sum_{i=0}^{n-1} (att_i)(spot_i) [\mathbf{a}_{cm} * \mathbf{a}_{cli} + (\mathbf{n} \odot \overrightarrow{\mathbf{VP}}_{pli}) \mathbf{d}_{cm} * \mathbf{d}_{cli} + (f_i)(\mathbf{n} \odot \hat{\mathbf{h}}_i)^{s_{rm}} \mathbf{s}_{cm} * \mathbf{s}_{cli}]$$

n 이 물체의 법선벡터이고, VP 벡터는 물체에 입사하는 광원의 방향에 반대되는 벡터의 단위벡터를 나타낸다. 즉, N (내적) L 의 의미와 같고, 이곳에서 렘버트의 코사인 법칙이 적용이 된다. 두 벡터 사이 각이 클수록 난반사의 효과는 감쇄하고, 사잇각이 작을수록 난반사의 효과는 커진다.

dcm 은 물질의 난반사 색, dcli 는 i번째 광원의 난반사 색을 나타낸다.



## 3. Specular Reflection

Specular reflection은 난반사와 달리 특정 방향을 중심으로 들어온 빛을 집중적으로 반사한다.

OpenGL에서는 특정 방향을 나타낼 때 halfway vector를 정의한다. Halfway 벡터는 광원에 대한 방향과 관찰자 방향의 중간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이다.

$$(\frac{L+V}{|L+V|}) \qquad h_l = \begin{cases} \frac{VP_{pll}}{+} + VP_e, & v_{bz} = TRUE \\ \hline VP_{gll} + (0010)^t, & v_{bz} = FALSE \end{cases}$$

이때  $V_{bs}$ 는 boolean 변수로 지역 관찰자의 유무를 나타낸다. 유무에 따라 halfway vector가 다르게 정의 된다.

Specular reflection 색을 계산할 때 halfway 벡터를 사용하는 것은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다. 기존의 L과 N 벡터, 그에 대해 대칭한 R을 이용하면 매순간 연산의 양이 많다. 하지만 초기에 halfway Vector를 1번 계산해 놓으면 매번 계산할 필요가 없다.

$$\mathbf{c} = \mathbf{e}_{cm} + \mathbf{a}_{cm} * \mathbf{a}_{cs} + \sum_{i=0}^{n-1} (att_i)(spot_i) [\mathbf{a}_{cm} * \mathbf{a}_{cli} + (\mathbf{n} \odot \overrightarrow{\mathbf{VP}}_{pli}) \mathbf{d}_{cm} * \mathbf{d}_{cli} + (\mathbf{f}_i) (\mathbf{n} \odot \hat{\mathbf{h}}_i)^{s_{rm}} \mathbf{s}_{cm} * \mathbf{s}_{cli}]$$

공식에서  $(\mathbf{n} \odot \hat{\mathbf{h}}_i)^{s_{rm}}\mathbf{s}_{cm}$  부분은 h 방향으로 반사된 빛이 집중되는 걸 나타낸다.  $S_{cm}$  은 물질의 정반사 색을 나타내고,  $S_{ci}$  는 i번째 광원의 정반사 색을 나타낸다. 따라서,  $(\mathbf{n} \odot \hat{\mathbf{h}}_i)^{s_{rm}}\mathbf{s}_{cm}$  와  $S_{cm}$  과  $S_{ci}$ 를 곱해 최종 정반사 색을 정한다.

 $f_i$  의 경우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변수로 물체의 뒤에서 들어오는 빛의 경우에는 무시해준다는 것을 의미한 다.